수퍼 양

(요10:22~42)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슈퍼 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라고 다들 아시죠?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 아닙니까?
또, 슈퍼원더우먼, 슈퍼라는 말을 빼고 '원더'라는 말을 씁니다만 슈퍼우먼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 양'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보다도 훨씬 더 역사가 긴 것이 슈퍼 양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그리스도, 구세주의 가장 오래 된 역사를 가진 이상형이 바로 슈퍼 양입니다.
그러므로 슈퍼맨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서 기독교인들의 역사와 함께 이 지상에서 슈퍼 양이 그려지고 있고, 숭앙되고 있고, 이야기되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딱 '슈퍼 양'이라는 단어를 만들지는 않았을 뿐이지 슈퍼 양에 해당되는 그림을 구세주의 이상형으로 알고 우리가 믿어왔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봉합하려 해도 봉합할 수가 없게끔, 예수님을 슈퍼 양으로 상대하는 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이 찢겨져 나가고 만다는 얘기에요.
오늘 유대인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찢어져나가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0장은 전체적으로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를 소재 삼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양과 목자의 관계가 이야기되면서도 조금씩 조금씩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수전절에 이르러서 때는 겨울인데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답답해 죽을 지경이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다, 내가 언제 너희가 갑갑증이 나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듯 말 듯 그런 적이 있느냐? 나는 밝히 다 얘기했다, 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다 증거 했고, 나로서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더 잘 제시할 수도, 강하게 설득할 수도 없고, 이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완전히 더 할 수가 없을 만큼 확고하게 드러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드러내셨으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떠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달라붙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왜 얘기하지 않느냐?' 왜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가짐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는데도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아니요! 양의 탈을 쓴 이리? 아니요!
양의 탈을 쓴 목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양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슈퍼 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슈퍼 양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자기들이 정해놓았습니다.
자기들이 그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라고 강요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들의 슈퍼 양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자기들이 길을 정해놓았으므로 자기들은 실제로는 양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미 위치상으로 목자의 위치에 서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셔도 그 얘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서 길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면 마땅히 우리가 정해둔 이 길을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그 길을 갈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쯤이면 군사를 비밀리에 모집한다든지 로마제국의 허점을 간파하기 위해 정탐을 한다든지, 이런 모종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길을 걸어가려는 조짐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갑갑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만 두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될 것 아니겠어요?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슈퍼 양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슈퍼적 기질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그 능력과 지혜와 힘이면 슈퍼 양이 될 기질은 있는데 문제는 자기들이 제시한 길을 이 슈퍼 양이 따라가지를 않으니까 자꾸 그리스도가 맞냐? 하고 와서 따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 답답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시고 목자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유대인이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슈퍼 양이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서 슈퍼 양이 되십니까?
아주 크게는, 내가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놓습니다, 하여간 세상에서 좀 본이 되는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각 분야에서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가들은 왜 하나 같이 우리가 격언이라고 붙들 수 있는 말이라고 해주는 것들이 다 그렇게, 목표를 뚜렷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목표를 뚜렷이 하라, 비전을 가져라, 꿈을 잃지 말라, 백 번 실패해도 101 번째 일어나라!
제 속이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 먼저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미 우리는 길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내게 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어 가시려면, 내가 정한 인생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슈퍼파워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도움을 주고, 초월적인 어떤 계시를 통하여 내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슈퍼 양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는 한에 있어서 주님은, 우리가 양의 탈을 쓴 목자로써 우리가 길을 제시할 때 그 길을 걸어가는 슈퍼 양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그 길을 우리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놓지 않는 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게 찢어져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큰 스케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나 목적을 향한 길이 아니더라도, 주어진 우리의 상황 상황마다 문제 문제마다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길과 해답을 마음에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아, 이렇게 돈이 벌려야 되겠다, 누구를 찾아가서 해결해야 되겠다, 주님!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는데 의사의 손을 잘 붙잡아주셔서 내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처럼 전부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자식의 문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내 자식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서 인생의 성공하는 자리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길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경우에는 전부 예수님은 슈퍼 양으로 전락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양이라고는 하지만 양의 탈을 쓴 목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실지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목자로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길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목자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인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도록 가지 않는 목자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목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에게는 목자 자신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양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말도 맞지요, 목자가 목적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 자체가 얼마나 교묘한 잘못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에 목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린 양이라서 목자만이 양의 목적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다, 내가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겠다, 이런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아,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이런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바라고 싶고, 소원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을 갖기를 소원하라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 한분뿐이에요, 양인 우리들의 목적은 어떡하든지 예수님을 좇아가는 게 유일한 목적이고 공통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좇아가는 양들이 되었을 때, 우리 육체로 이루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실 그 일들을 내가 목적으로 삼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양으로써 그냥 나는 날마다 십자가로 가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목적을 마음에 품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양이면 양답게 오직 목자만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목자를 좇아가느냐'이지, '어떻게 푸른 초장을 찾아가느냐, 어떻게 내 인생에서 이루어질 일을 생각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 하는도다'
다시 말해 주님이 실지로 가고 계시는 것을 좇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좇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넘어가면 이제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것 많고, 소원하는바 많고, 갖고 싶은 것 많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이 목자로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양이 돼서 좇아갈 때 십자가로 가시는 바람에 내가 원하던 모든 것 다 등 뒤로 놔두고 이 세상을 내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바깥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 그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서 갖고 싶었던 기쁨과 행복과 모든 만족을 거기서 가지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인도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온갖 아름다운 신앙적인 명분을 다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내보내셨을까, 왜 내보내시기는 왜 내보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슈바이처같이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내보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갖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좋아할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좇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라고 이 세상에 온갖 좋은 것들과 온갖 가질만한 것들과 온갖 추구할만한 것들을 다 주신 다음에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사랑에 의미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라고…
아니 이 땅에서 가질만한 것, 좋은 것, 이룰만한 게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갖 좋은 게 다 있는 이 세상에서 왜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을 좇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등지고 기꺼이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아, 네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십자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므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을 보이라는 얘기에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계속 읽어봤더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신은 배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거라 이겁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반대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따라갈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 쫓아갈 때 십자가에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늘로 우리 마음이 향할 때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왜 이 세상을 목표로 향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슈퍼 양으로 만들고, 너희가 목자의 자리에 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만들어놓고 예수님을 슈퍼 양으로 강요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양들이 아닌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슈퍼 양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사도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습니다.
그를 이방의 사도로써 활동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직접 활동하시는 것이지, 사도바울은 날마다 죽으면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을 드린 것뿐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될 아침에 일어나서 날마다 죽어버립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마음은 하늘에 가서 하늘에 앉히기를 원해서 내 마음을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하늘로 가고, 그렇게 가고 난 다음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장악하셔서 이방의 사도라는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목적을 하나님께서 수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절대로 내 인생에 관계된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아름다운 명분을 갖고 뒤집어 씌워도 결국 예수님은 나의 슈퍼 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의 목자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 없고, 반드시 찢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를 따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길을 정해놓은 대로 우리를 따르시는 슈퍼 양이 아니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을 따름에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음을 우리의 이 둔감한 죄로 덮인 우리의 의식이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